

‘소규모 밀착 안전망’으로 중대재해 막는다

市, 안심ilter표준모델 국비 6억 확보 맞춤형 보호구·상당...현장 밀착 지원

광주시가 소규모 제조업 현장에 ‘안전길잡이’를 구축하고 초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 사업에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광주시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제조업체와 영세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역 산업의 현황과 인력 구조,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

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 등 2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다.

‘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 사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보호구를 보급하는 한편,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지도와 현장 맞춤형 상담 등을 병행해 개별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 사업’은 공사 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 안전시설물과 보호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 밀착 맞춤형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는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 사고 발생 가능성을 선제 차단할 방침이다.

이 사업의 운영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맡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



도립미술관 ‘허달재 초대전’ 개막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18일 광양시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허달재 초대전’ 개막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형 안전망을 완성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대재해 예방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광주형

안심 필터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 산업현장 전반에 우수 사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 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체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봄철 산불 예방·대응 총력

내달 19일까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

기동단속·야간산불 신속대응반 투입

전남도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4월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의 40%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의 90%가 3~4월에 집중됐다.

올해는 봄철 건조기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오후와 일몰 시간대에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 감시원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집중 배치하고 야간산불에 대비, 신속대응반 28개 조 179명을 편

성해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도록 운영한다.

또한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 배송원이나 택시 기사 등 전남지역 생활권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전남 산애(山愛) 감시원’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 감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태양광 발전시설, 주요 산림지역 등에 대한 점검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소방·경찰·군부대·산림조합 등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전남도 임차 헬기를 선제 투입하는 한편, 산림청 진화 헬기와 소방 인력도 신속히 투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말과 휴일에는 전남도 환경산림국 6개 부서 90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영농 부산물과 농산 폐기물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道, 6천억 규모 中企·소상공인 금융지원

중동발 위기대응 긴급자금 등 확대

전남도가 중동발 대외 여건 악화로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6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중동사태로 수출입 차질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 운영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

한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과 함께 2.5%p 이하 보전(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대출이자의 3~3.5%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중동사태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업부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민주 김영남 서구청장 경선후보 사퇴

김이강 vs 조승환 2파전 구도

더불어민주당 김영남 광주 서구청장 경선후보가 18일 “고심 끝에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저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충분히 상의도 드리지 못한 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출마의 뜻을 접게 됐지만 서구를 위한 마음은 변함없이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저를 믿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경선은 김이강 서구청장과 조승환 예비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서구청장 경선은 동구청장·광산구청장과 동일하게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4~26일 권리당원 ARS 조사(24~25일)와 안심번호 여론조사(26일)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한다. /변은진 기자

제49회 보성 다향 대추제
2026. 5. 1. (금) -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차문화행사, 체험행사, 전시/공연, 부대행사 등

- 제49회 보성군민의 날**
5. 1. (금)
보성군문화예술회관
기념식, 군민의상 시상
-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2. (토) - 5. 4. (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판소리, 고수 경연대회, 추모제
- 제22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 2. (토) - 5. 4. (월)
웅치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2. (토)
보성공설운동장
플. 하프, 10km, 5km

주최: 영농조합법인보성차생산지조반
주관: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남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사